

노 재 승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水’ 물을 통한 조형성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7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송 운 창

‘水’ 물을 통한 조형성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노 재 승 지도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송 운 창

인 준 서

송운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논문개요

인류가 탄생한 이래 물은 쉽 없이 흐르며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

생명 영위의 가장 깊은 곳에 관여 하며 인류의 문명과 환경을 지속시켜온 필요불가결한 존재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의 소리이며 영원히 생성하는 소리라 일컬어지는 물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우리는 물 안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배우는 삶을 살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물이 가지는 본연의 의미와 물이 인간에게 있어 가지는 의미를 가장 가깝고 쉬운 곳에서 우리와 물을 연결 시켜주는 매개체로 인식 되고 있는 수도꼭지와 물줄기의 형상을 조형적으로 이미지화시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제작되고 있는 본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창작 동기와 목적, 이론적, 조형적 배경 및 작품의 제작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水’ 물을 통한 조형성 연구이며 총 3장으로 서술하였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작품 조형성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II 장. 본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근거가 되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형태적 근거와 표현방법을 서술함으로써 그에 따른 작품분석을 하였다.

제 III 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본인은 본인 작품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앞으로의 이를 근거로 하여 작업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2
1. 작품의 배경	2
2. 작품의 형태적 근거	
(1) 표현 방법	4
(2) 도입된 형태	5
3. 작품분석	7
III. 결론	28

참고 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水"-검룡소에서 한강으로	7
[작품 2] "水"-검룡소에서 한강으로	8
[작품 3] "水"- 난지천- 물에 대한 보고서	11
[작품 4] "水"-검룡소	13
[작품 5] "水"-검룡소	14
[작품 6] "水"-눈물	17
[작품 7]"水"-Water-Road-Civilization	20
[작품 8]"水"-Dream	23
[작품 9] “水”- Cardiogram	26

I. 서 론

물은 만물의 근원으로 우리의 삶 전반적인 부분에서 관여하고 있으며 현실적 존재로서 하나의 생명이다.

물은 인류라는 유기체적인 생물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역사라는 시간적, 경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과거의 현실적 존재로서 무수히 많은 새로운 현실과 합생 함으로서 서로의 상호를 파악하고 작용하며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과 관계한다.

인간은 존재함이 시작 되면서부터 욕구(appetitive)와 향유(enjoyment)와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유기체적 사회라는 것이 파생 되었고 인간은 물이나 돌과 같은 무기적 사회를 포함하고 주위의 환경과 상호 작용 하며 개념적 새로움이 창출되어 언어가 생기고 문화, 예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본인은 이러한 관점에서 물과 인간의 상호 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물에 관한 조형성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물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를 의식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추상적인 물의 의미를 조합하여 작업을 통해 조형적 언어로서 이야기 하고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상징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으로는 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물’에 대한 철학적 사고를 규명하고 작품의 표현방법과 조형적 특성을 고찰, 분석하였다.

II. 본 론

1. 작품의 배경

화이트헤드 (Whitehead, Alfred North)¹⁾는 ‘우주에 존재하는 먼지 하나까지 다수의 여건들을 자기화 하여 하나의 고유한 가치를 획득해 감으로서 존재하는 현실적 존재라 하여 모든 생명을 담고 있는 우주는 그 자체로서 생명을 갖고 있는 과정으로서 엔트로피²⁾에 와해되지 않으며 그 과정은 무질서한 발산이 아닌 무수히 많은 가능성 안에서 고유한 목적을 지향하는 과정이다’³⁾ 라고 하였다.

선택의 가능성, 즉 엔트로피의 발산이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더욱 큰 향유를 발생하고 우주는 그 안에서 더 많은 관련성을 도모하며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본인은 이 우주안의 수많은 생명 중 가장 복잡한 유기체적 생명인 인간과 무기체적 생명인 물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생명은 각자의 사회를 구현하고 서로 많은 상호 의존과 연대성을 바탕으로 존재하고 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 인간은 물에 의존하며 문명을 이루기 시작하였고 이는 지금까지 상호작용을 통해 이어져 오고 있다.

1) 영국의 철학자 수학자(1861~1947). 기호 논리학을 확립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유기체론에 바탕을 둔 독창적인 형이상학을 수립하였다. 저서에 공저(共著) 《수학 원리》, 《과정(過程)과 실재(實在)》, 《과학과 근대 세계》 따위가 있다.

2) 물질계의 열적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의 하나이다. 자연현상의 변화는 물질계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데, 이를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현상은 비자발적인 현상이다. -노자와 21세기 김용옥(도올) 통나무 1999년 11월 01일

3) 화이트 헤드의 인간의 이해-www.kr.yahoo.com

본인이 생각하는 물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인간이라는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투영하며 경험적, 시간적 요소를 가지지는 생명이다. 이는 새로운 현실적 존재와 합생하여 물의 동일성을 지켜내고 계승해 나가는 소극적인 생명체라는 화이트 헤드의 관점에 동의한다고 할 수 있다.⁴⁾

물은 생명이라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고유의 가치를 실현하며 주변의 모든 생명적 존재들과 관계를 가지며 존재한다.

이러한 관계는 사회라는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 내는데 이는 상호간의 에너지의 질서를 갖추고 있는 결합체로서 사회는 현실적 존재들의 상호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파생적 존재이다.

물 자체로는 무기적인 사회로서 인간은 스스로 이 무기적 사회를 포함하며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서 언어가 생기고 사회가 생기고 문화가 생기고 예술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본인은 물이라는 무기적 생명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하여 작품을 크게 생명, 문화 환경이라는 문맥으로 나누어 작업을 하였다.

근본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가진 물은 인간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문명의 발생을 도왔으며 그와 함께 시간성을 띄고 함께 흘러 왔다.

문명의 발달의 인간이 사회를 만드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고 이는 다른 모습과 다른 시간이지만 과거라는 하나의 현실을 만들며 물과 함께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수도꼭지는 우리에게 친근하고 가까운 존재로서 물의 연상이 용이한 오브제 이다. 이를 조형적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보다 직설적으로 물에 대한 연상의 동기화를 기대하고 물줄기 형상의 이미지를 설치함으로써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온 물을 고찰하고 물은 우리의 미래이며 과거로서 물과

4) 화이트 헤드의 인간의 이해-www.kr.yahoo.com

함께 해온 많은 사례들이 현재 우리네의 청사진임을 인식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2. 작품의 형태적 근거

(1) 표현 방법

본인은 물을 주제로 하여 설치미술(設置美術, installation art)이라는 방법을 통해 작품을 이야기 하고 있다.

어원적으로 인스텔레이션(installation)⁵⁾은 어떠한 공간에 사물을 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시장에 그림을 걸어 놓는 것, 조각 작품을 놓는 행위 또한 인스텔레이션(installation)에 포함되는 것이다.

설치미술은 특정 장르 혹은 이즘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며 미술의 한 방법론으로서 공간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며 나아가서 공간을 창조함으로서 단순히 공간에 놓이는 것이 아닌 공간을 작품화(作品化)하여 공간과 작품과의 관계에 의미 부여가 되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을 설치할 때 공간이라는 요소가 작용함으로서 여타 오브제와 구분된다. 또한 조각과 구분되어 질 때 한계의 모호함이 따르지만 조각 작품 자체만으로 공간과 작품의 평행적 관계로서 공간을 작품화 하지 않는다.

이 설치미술은 단순한 오브제나 조각이 임의적으로 축적되어 독자적인 환경적인 공간을 지니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사물로서 포착하고 있는 즉물적(卽物的) 특성과 환경적 구성물이라는 양의성(兩義性)을 지닌다.

5) 인스텔레이션(installation)- 1970년대 동안 어떤 특수한 전시를 위해 화랑에 각별히 구축해 놓은 하나의 앳상블라지 또는 환경 때문에 유행하게 된 용어. 헤럴드 오즈본, 20세기 미술사전, 테임스 앤 허드슨사

설치미술이라는 용어와 함께 환경(environment)⁶⁾이라는 용어가 미술작업의 맥락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는 ‘환경’이라는 것에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서 환경을 단순히 주어진 공간으로서가 아닌 재형성하고 단순히 주어진 공간조차 그것을 변질시키려는 지향성을 지닌 것으로 규정한다.

설치미술의 전시방법을 이야기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전시공간을 환경화’⁷⁾ 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실제 환경을 작품화’⁸⁾ 하는 방법이다.

본인은 이를 바탕으로 설치미술이라는 전시방식을 통하여 공간 전체를 조형화하며 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장소성을 부각시켜 단순한 공간의 개념을 뛰어 넘어 정치,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에 관계하여 리얼리티를 살리는 공간으로서 재탄생시킴으로서 공간과 작품사이의 문맥을 만들어 내하고자 하였다.

특정 공간의 고유성과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작품을 설치하고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관객과 작가, 작품과 장소의 상호 이해를 넓히며 담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중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도입된 형태

1) 수도꼭지

중국의 노자는 “물은 이 세상의 빈공간은 채워주며, 늘 그곳에서 떠나지 않

6) 환경(environment)-환경이란 단어가 미술의 맥락에 자리잡게 된 것을 그리 오래 되지 않았는데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뜻으로 처음으로 미술속에 도입시킨 사람은 알랜 카프로로서 ‘헤프닝의 창시자로서 그 헤프닝과 관련하여 환경에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7) 전시공간을 환경화 한 작품으로 20세기 미술사에서 설치 방법을 시도한 작품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다다이즘의 경우 쿠르트 슈비터스(Kurt Schwitters)의 메르츠바우(Merzbau), 미니멀리즘의 경우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의 전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물건으로서의 작품에서 공간으로서의 작품으로 이행하여 ‘전시공간을 환경화’ 하는 방법이다.

8) 환경 자체를 전시 공간화 하는 거대한 설치미술로서 대지미술이나 개념미술, 헤프닝, 퍼포먼스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고 머문다.” 9) 라고 하였다.

물은 채움(fill)과 비움(empty)의 미학으로 한 공간을 채우고 나면 그 곳을 넘쳐 흘러 공간을 비우고 다시금 새로운 채움의 공간을 만들어 낸다.

본인 이 생각하는 물의 특성과 미학을 조형화 시킨 수도꼭지의 이미지는 작품의 전시장소를 작품화 시키는, 작품과 장소의 매개체로의 중심이 되는 역할로서 직설적이고 설명적인 조형적 요소이다.

관객의 일차적인 시각적 경험을 유발하고 암시적인 오감의 연상 혹은 경험의 연상 유발을 수반한다.

2) 물줄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어느 누구도 같은 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고 했다.¹⁰⁾

모든 존재는 과정의 종식 단계에서 소멸하지만 다시금 현실적 존재의 일부를 구성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물은 이전의 존재를 자기 속에 파악하여 다(多)가 일(一)이 되는 방식으로 그 본래의 것으로 영속하게 된다.

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물줄기의 형상은 수도꼭지 이미지와 조합하여 본인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물의 미학과 조형성을 뒷받침 해준다.

9) 물의 역사(세계의 신화, 풍습, 예술속에 나타난 물의 이미지), 알레브 라이틀 크루디어 (Alev Lytle Croutier), 윤희기 역, 예문 1995, p.93.

10) 물의 신화(물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폴 시 그래브, 김태수 역, 한국예술사, 1996.p.20

3. 작품 분석



[작품 1] "水"-검룡소에서 한강으로 1



[작품 2] "水"-검룡소에서 한강으로 2

[작품 1] "水"-검룡소에서 한강으로 1

연 도: 1998

크 기: 120x120x600(cm)

재 료: 스틸 파이프, 소나무, 오브제

설치장소: 한강 시민공원 . 서울

[작품 2] "水"-검룡소에서 한강으로 2

연 도: 1999

크 기: 200x200x650cm

재 료: 동 파이프, 소나무, 오브제

설치장소: 여의도 공원 . 서울

제작방법: 이 작품은 한 가지 재료가 아닌 여러 오브제들의 접합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5m 이상의 소나무의 겉 표면을 갈아내어 기둥을 만든 뒤 나무 상단에 펌프를 용접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나무의 오랜 보존을 위한 오일 스텐을 수일 동안 5회 정도 반복하여 칠한 후 건조 시킨다.

나무 기둥과 파이프 고정을 위해 파이프 길이에 맞춰 구멍을 뚫은 후 에폭시를 이용해 접합한다. 수도꼭지를 파이프에 연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파이프에 나사 구멍을 내어 에폭시를 이용해 수도꼭지와 접합한다.

본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검룡소는 514km 한강의 발원지로서의 상징성을 보유한 신비스러운 곳이다. 둘레 20m정도인 조그만 곳에서 5000t 이 넘는 물줄기가 지하 암반을 뚫고 뿜어져 나와 거대한 한강을 만든다.

모든 생명의 근본이 물에서 시작하였듯, 이 작은 물줄기가 한강이라는 거대한

강을 만들어 수많은 물꼬를 트고 수많은 강들과 연결되어 흐르며 그 안에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영위하는 근원지이다.

작품에서 펌프가 의미하는 바는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는 작은 검룡소의 메타포로서 생명을 담은 발원라고 할 수 있다.

가느다란 파이프 관을 통해 올라오는 물줄기는 작지만 힘찬 약동성을 가지며 물을 품어내고 무한한 갈래로 뻗어 나가는 물줄기를 파이프와 펌프라는 오브제를 통해 형상화 하여 작은 물줄기가 거대한 대지를 적시고 물꼬를 틀어 뻗어나감으로서 수많은 생명의 근원이 됨을 말하고자 한다.

대지 위를 흐르며 수많은 생명과 관계하는 물줄기 혹은 생명체의 몸 안에 흐르는 물처럼 본인의 작품은 펌프라는 조형적 이미지를 통해 끌어올려지는 생명의 물줄기를 의미한다.



[작품 3] "水"- 난지천- 물에 대한 보고서

[작품 3] "水"- 난지천- 물에 대한 보고서

연 도: 2002

크 기: 5400x4600x350(cm)

재 료: 파이프, 필름, 오브제

설치장소: 난지천 공원, 서울

제작방법: 사전 답사를 통한 설치 공간의 이해 후 도면 제작과 위치를 선정 과정을 거쳐 절단, 용접, 도색을 통해 파이프 1060여개를 제작하여 밀리지를 부착한 후 난지천 공원에 설치하였다.

깨끗한 물과 공기는 인간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중 모든 생명의 원천이자 문명의 근원인 물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인류의 중요한 천연자원이며, 우리의 삶과 직결(直結)되는 환경의 일부임을 깨닫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본 작품은 난지천이라는 환경을 작품화함으로서 난지천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공간과 설치 작품 간의 맥락을 같이하고 관람자의 경험을 통해 의미가 구성되고 심리적 참여를 유도하며 예술이라는 장르를 통해 삶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난지도가 쓰레기 매립지가 되기 전 많은 생명을 담고 한강과 샨강이 흐르던 난지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아 가고자하는 바람을 담아 1060개의 수도꼭지를 난지천에 설치하여 이를 통해 물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흐르고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된 소중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난지천의 수도꼭지는 인간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반성이며 생명을 담은 물줄기가 쏟아져 나와 오염된 난지천을 씻어내기를 바라는 본인의 염원이 담겨있다.



[작품 4] "水"-검룡소



[작품 5] "水"-검룡소

[작품 4] "水"-검룡소

연 도: 2004

크 기: 240x10x700(cm)

재 료: 스틸-도색, 필름

설치장소: 바람 공원. 제주도

제작방법: 이미지를 제작한 후 도면 작업과 CAD작업을 거쳐 레이저 절단을 한다.

작품의 크기가 크므로 100mm 각 파이프를 기본 골격 프레임 제작 후 용접을 한다. 그 후 도색 작업과 필름을 부착 한다.

[작품 5] "水"-검룡소

연 도: 2005

크 기: 240 x 240 x 700(cm)

재 료: 스테인레스 스틸, 필름, 할로겐 램프

설치장소: 일산 특별 전시장. 일산

제작방법: 7m의 수도꼭지 모양의 기본 프레임을 각 파이프를 제작한 후 밀리 스테인레스 스틸을 폭 10cm 수도꼭지 모양으로 절단하여 1cm의 간격을 두고 용접을 한다. 투명 렉산 박스 안에 할로겐 램프를 넣고 수도꼭지 안에 설치하여 1cm 간격의 틈 사이로 세어나 온 빛으로 전체적으로 수도꼭지 모양이 보여 지도 록 의도하였다.

수도꼭지는 근본적으로 물을 생산해 낼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도구이자 물을 공급받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물에 대한 연상 작용이 쉬운 친근한 이미지로서 다가온다.

수도꼭지의 이러한 이미지를 조형적인 형태로 형상화함으로서 보다 간결하고 명쾌하게 접근하고 직설적으로 물의 존재를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수도꼭지는 저 깊숙한 검룡소의 암반에 있는 물을 끌어 올리는 강한 약동성과 근본적인 생명의 힘을 의미하며 급박한 수직적 형상으로 생명의 물줄기를 힘차게 뿜어내는 긴장감을 표현하였다.

본 작품에 수도꼭지의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서 조형적인 물의 이미지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생명성을 가지고 있는 물의 의미를 끌어 올려 뻗어나가는 확장 의미를 직설적으로 이야기 하였다.



[작품 6] "水"-눈물

[작품 6] "水"-눈물

연 도: 2004

크 기: 1100x1200x50(cm)

재 료: 스틸-도색, 천, 필름

설치장소: 서대문 형무소 . 서울

제작방법: 사전 답사를 통한 공간에 대한 이해와 위치를 선정 한 후 스테인레스 스틸을 수도꼭지 모양으로 400여개를 레이저 절단을 통해 제작한다.

그 후 용접, 도색, 필름지 부착 작업을 한 후 현장에 설치한다.

본 작품은 우리의 역사 속에 흐르는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 恨-문화와 함께 서대문 형무소가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서대문형무소는 80여년 동안 우리 근현대사 격동기의 수난과 민족의 한이 서려 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우리 민족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표적인 탄압기관이었다.

이 장소에 설치미술이라는 전시방식을 통하여 공간 전체를 조형화 하며 설치미술이 내포하고 있는 장소성을 부각시켜 단순한 공간의 개념을 뛰어 넘어 정치,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에 관계하여 리얼리티를 살리는 공간으로서 재탄생 시킴으로서 공간과 작품사이의 문맥을 만들어 내었다.

본인은 하나의 역사적 문화로 우리의 가슴속에 맺혀진 눈물로 자리 잡은 이 장소에 수많은 녀을 기리는 마음으로 400여개의 수도꼭지들을 물방울 형상으로 설치함으로써 애도의 눈물방울을 만들어 내었다. 더불어 이 애도의 눈물이 그들 녀의 아픔을 씻어 흘려보내어 정화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본 작품에서의 수도꼭지 이미지는 위에서 언급했던 수도꼭지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서의 ‘水’를 연상시킴과 동시에 서대문 형무소라는 장소성과 본인의 작

품이 만나 하나의 내러티브를 만들어 냄으로서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후세인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또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문화를 담아 미래의 후손에게 전하는 의미를 가진다.



[작품 7]"水"-Water-Road-Civilization

[작품 7] "水"-Water-Road-Civilization

연 도: 2005

크 기: 3500x3000x2500cm

재 료: 스틸-도색, 필름

설치장소: 반월 아트 센터. 포천

제작방법: 수도꼭지 모양으로 레이저 절단을 한 후 용접, 도색 작업을 거쳐 선정된 위치에 설치를 한다.

그 후 반월 아트센터 외벽에 설치될 드로잉을 도면 작업을 거쳐 접착 밀러 시트지를 컴퓨터 제단을 한 후 5t 스카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외벽에 설치한다.

물은 그 안에 많은 것을 내포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의 기본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이루고 있는 문명, 문화의 발원이자 근원이 되고 있다.

물은 지금까지 인간이 걸어온 역사적 길로서 은유될 수 있는 존재이며 우리에게 준 커다란 혜택만큼 지켜가며 함께 해야 할 미래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작품은 물이 만들어낸 문명, 문화의 길을 표현하고자 한 작품으로서 설치 미술의 '실제 환경을 작품화' 하는 방법을 시도하여 미술관을 벗어나 포천 반월 아트 센터 전체를 설치 조형물로 만들어 환경 전체를 공간화 하고자 한 작품이다.

본 작품은 작은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온 물이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세상을 적시며 흘러나가는 문화, 문명의 길을 의미한다.

작은 물길을 시작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계하며 큰 물줄기를 만들며 흘러온 물은 저 멀리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길을 만들며 흘러나갈 하나의 문명이다.

이전 모든 문명이 물길을 따라 생겨나고 파생되었듯 이 물줄기들은 물꼬를 틀

어 수많은 길을 만들어 내며 그 길을 따라 인간은 삶을 영위하며 새로운 문화들을 꽃피워 감을 이야기 한다.



[작품 8]"水"-Dream

[작품 8]"水"-Dream

연 도: 2006

크 기: 1500x2000x550(cm)

재 료: 스테인레스 스틸, 필름

설치장소: 금산 갤러리. 헤이리

제작방법: 스테인레스 스틸을 수도꼭지 모양으로 레이저 절단을 한 후 용접을 한다. 그 위에 색색의 시트지를 부착한 후 외장용 투명 우레탄으로 마감처리를 한다.

그 후 설치 공간의 벽면을 밀러 시트지를 부착하여 물줄기 모양으로 설치한다.

본 작품은 물줄기를 타고 흐르며 서로의 문화가 만나고 어우러지는 밝고 희망찬 우리의 모습을 형상화 하고자 하였다. 다른 꿈, 다른 희망, 각자 다른 이야기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모여 하나의 삶을 이루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며 흘러가는 삶의 이야기 이다.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 되었지만 수천만 개의 물줄기를 만들어 내며 다양하지만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 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

수도꼭지에 다양한 색을 입힘으로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며 그 다름은 물줄기를 타고 하나로 어우러짐으로서 다양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내었음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벽면에 밀러 시트지로 설치한 물의 이미지는 이러한 다양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물줄기를 의미하며 자유롭게 뻗어 흘러나가는 물줄기는 확장의 의미를 가진다.

실내 공간을 설치를 통해 하나의 커다란 작품화시킴으로서 ‘전시 공간을 환

경화' 시키고 작가와 관객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심리적 참여를 유발하고 그로 인한 경험이 작품의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로 수용되어 대중화의 가능성을 염두 한다.



[작품 9] “水” - Cardiogram

[작품 9] “水” - Cardiogram

연 도: 2006

크 기: 250x50x200(cm)

재 료: 스테인레스 스틸, 도색, 아크릴, 필름, LED

설치장소: 성남아트센터, 분당

제작방법: 스테인레스 스틸을 레이저로 절단한 뒤 용접, 도색한다.

물줄기 모양으로 절단 된 공간에 LED 조명을 설치 한 후 투광 컬러 시트지를 부착한 물줄기 모양의 아크릴을 그 위에 접합한다.

설치 공간 바닥에 물줄기 모양의 밀러 시트지를 부착한다.

인간의 혈액의 80%는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혈액은 인간의 모든 장기의 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이다. 혈액이 순환하여 흐르는 것은 심장과 맥이 뛰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vital sign을 확인할 수 있다.본 작품은 물이 가지는 생명성을 동맥과 정맥을 타고 흐르는 혈류를 이미지화 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생명체의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수많은 혈류들을 색색의 필름지를 이용하여 이미지화 하고 수도꼭지의 물줄기 형상에 혈류의 이미지를 넣음으로서 물줄기를 따라 흐르는 vital sign을 나타낸다.

수도꼭지를 통해 바닥 전체로 흐르는 물줄기는 vital sign을 투영하고 인간의 몸 혹은 대지 위를 흐르는 생명의 물길을 의미하는 조형적 공간을 구성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본인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물의 조형성을 설명하였다.

물은 그 안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의 기본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이루고 있는 문명, 문화의 발원이자 근원이다.

물은 지금까지 인간이 걸어온 역사적 길로서 은유될 수 있는 존재이며 우리에게 준 커다란 혜택만큼 지켜가며 함께해야 할 미래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물은 작은 물길을 시작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계하며 큰 물줄기를 만들어 흘러왔으며 저 멀리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길을 만들며 흘러나갈 하나의 생명이다.

이전 모든 문명이 물길을 따라 생겨나고 파생되었듯 이 물줄기들은 물꼬를 틀어 수많은 길을 만들어 내며 그 길을 따라 인간은 삶을 영위하며 새로운 생명을 종속시켜 갈 것이다.

본인의 작품 안에서 물은 시간성과 역사의 축적을 담아내고 있는 생명의 원천으로서 무한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흐르고 있다.

이러한 시간성과 생명성을 조형적 이미지를 통해 이야기함으로서 인류의 거대한 구심점임을 각인시키고 앞으로도 물이 내포하고 있는 많은 의미들을 다양한 조형적 이미지로 풀어내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물의 역사(세계의 신화, 풍습, 예술속에 나타난 물의 이미지), 알레브 라이틀 크루디어(Alev Lytle Croutier) ,윤희기 역, 예문 ,1995.

자연의 물, 인간의 물 , 최영박, 집문당, 1994.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에모토 마사루(Emoto Masaru) ,양역관 역, 나무심는사람, 2000.

물, 환경 인간, 이태교,범우사, 2000.

물의 신화(물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폴 시 그래브, 김태수 역, 한국예술사, 1996.

물, 김원명, 아카데미서적, 1991. 재미있는 물 이야기, 이태교, 현암사, 1998.

두 번째 재미있는 물 이야기, 이한구, 권창호, 현암사, 2004.

물의 도시 돌의 도시 영원의 도시 로마, 신상화, 청년사, 2004.

노자와 21세기 김용옥(도올) 통나무 1999년 11월 01일

참고site

www.naver.com

<http://kr.yahoo.com>

www.daljin.com

ABSTRACT

A Study on Formative Arts through Water

- Focusing on the products of the author -

Song, Un Chang

Dept. of Plastic Art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Water has continued flowing since the birth of mankind and has been with the history of human beings. Water is involved with the most profound point of life and is indispensable for the continuation of the culture and environment of mankind. Water is in itself a sound of life and the sound that is generated eternally. Water is the origin of everything and we receive, enjoy and learn much from water in our life. Regarding the inherent meaning of water and the meaning of water for humans, I am going to narrate with the formative image of the shape of the tap and the spout of water that are recognized as the media between water and us in our daily life.

This study is a research on the formative arts through water which presents the motive and purpose of creation, theoretical and formative background and the process of the making of the products in a

systematic manner for my products that have been made from 1998 to 2006.

Chapter I . The purpose and methods of the study of the formative arts of the products are presented in the introduction.

Chapter II .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my products are presented and the ground and expression methods for the forms are described in the main body for the analysis of the products.

Chapter III. Through the above process of research, the meaning of my products are reestablished and the direction for the future work is presented on its basis in the conclusion.

「水」물을 통한 조형성 연구

송
운
창